

■ 천태종 하안거 입제날 풍경

“반드시 여기서 깨달으리라”
천태종 재가신도 하안거 9일 입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 관음정근 소리가 가득하다. 8월 9일 밤부터 제99회 재가신도 하안거가 시작됐다. 천태종은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재가신도의 안거가 제도화돼 있는 종단이다.



구인사 각 법당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불자들이 앉아 관음정근을 하고 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잠잠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다.(我若不成正覺 此座不起)”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 불퇴전의 결심을 한 부처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큰 원력 앞에 출세의 구분이 있을까.

무더운 여름에도 구인사 각 법당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씩 신도들이 앉아 수행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99회를 맞은 이번 재가신도 하안거에는 구인사에만 1000여 명의 신자들이 운집했고, 전국 150여 천태종 사찰에는 총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동참해 9월 8일 해제까지 치열한 수행정진에 돌입했다.

천태종 재가신도 안거는 하루 중 수면, 공양, 휴식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엄불수행이 진행된다. 결제 첫 날, 한 달간 사용할 옷가지 등으로 인해 비좁은 자리임에도 정진의 열기가 대단했다.

울산에서 35회째 구인사 재가신도 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명동 보살은 “안거는 운명이 라고”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정명동 보살은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 안거 당시 간담을 앓고 있었는데 그 힘으로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다. 조사 스님과 종정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라고 말했다.

구인사 안거는 식당 등과의 거리를 따져 남녀, 수행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각 선방을 배정하고, 각 선방마다 담

당스님이 배정돼 신도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천태종 안거에는 염불 수행 외에 낮시간 동안 농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율령 등이 진행된다. 이는 상월 원각 조사의 생활 불교인 ‘주경야선(晝耕夜禪)’ 정신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경 야선은 낮에는 밭에 나가 노동하고 밤에는 참선을 하는 생산 노동으로 구인사는 배추와 고추 등 주요 작물들을 직접 재배해 자급자족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태종은 “지역 150여 개 사찰에서도 신도 안거가 실시되는데 주경야선 정신 하에 생업에 종사 중인 신도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절로 나와 안거 수행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 결제식에서는 종정 도용 스님 등 천태종 종진 스님들이 참여해 재가신도들의 수행정진을 독려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일심정정(一心淸淨)을 바로 닦기는 쉽지 않지만, 관음 신앙을 통해 각자의 마음자리를 닦아야 색채(諸色)이 공(空)해진다”며 “무더운 한 달 간의 수행이지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왕흥사지’를 지켜라

2일 대책위 결성... 충남도 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나서

충북지역 불교계와 시민들과 충남도가 4대강사업으로부터 백제시대 국왕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해)와 부여 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한 60여 단체들은 8월 2일 ‘왕흥사지 문화재 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고, 20일 왕흥사지 일대를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금강 일원의 백제문화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기로 결정했다.

충남도는 백제문화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세계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자문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보존관리계획 수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4일 성명서에서 “충남도가 지난 1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시킨 지역 가운데 공주의 고마나루, 공산성, 정지산 유적,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의 왕흥사지, 부소산성, 나성 등 8곳이 금강 사업으로 직간접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문화재청은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금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충남도 자원기구인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왕흥사지 등 공주·부여 일대의 백제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금강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의 4대강 공사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흥사지는 백제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 지었던 사찰이 있던 자리로, 삼국시대 사리장엄과 ‘왕흥(王興)’이라는 명문의 기와조각이 발견되는 등 백제 불교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setana@buddhapia.com

앙드레김 조문

불자 디자이너故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이 8월 12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 신도로 부처님 오신날과 백중, 칠석에 사찰을 찾아와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평소 서울 봉은사, 화성 용주사도 찾아 참배하곤 했던 앙드레김은 매일 오전 4시에 기상해 집안에 안치된 불상을 절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포교원장 혜승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등은 13일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상연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천재의 비밀은 ‘몰입’

봉은사 수능특강서 황농문 교수 강조

“뉴턴,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스티븐 잡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몰입’이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비법은 바로 내내 그 생각만 했기 때문이었다”

베스트셀러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몰입>의 저자,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8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수능인시특강에서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날 “보통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몰입하는데 방해는 일상 생활에서도 몰입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천재들이 몰입하는 원인에 대해 “죽음에 대한 성찰”이라

고 정의했다. 황 교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삶을 충실히 보낸 것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삶에 후회없기 위함”이라며 애플의 스티븐 잡스의 말을 들어 설명했다.

황 교수는 “스티븐 잡스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를 매일 생각하고 말했다”며 “일반인들은 오늘 죽는다면 하지 못할 일에 묶여있는데 죽을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날 모인 500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몰입을 체현하면 삶이 바뀌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다”고

전했다.

황농문 교수는 “진학을 위한 공부 아닌 공부에 몰입을 해 그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뒤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무작정 공부한다면 미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후회만이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일반인들이 몰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사고의 부재를 지적한 황교수는 “공부법에 있어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교수는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각 법칙을 발견하는데 몇 달 몇 년 걸린 이유는 해냈기 때문”이라며 “결국 해매도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다. 수행상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고 공부에 몰입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군종교구 호국연무사 불사 사칭 모연 주의 요청



육군훈련소 소속불사 명목으로 군종을 사칭해 화주 활동 중인 범인 차량(스타렉스 59머 1383).

육군훈련소 법법인 호국연무사 불사에 전국 불자들의 정성이 모이는 가운데, 호국연무사 불사를 사칭해 불법 모연하는 경우가 적발돼 불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6월 중순경 강원도 삼화사 입구에서 육군훈련소 불사 명목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불법 모연하던 현장을 적발해 엄중경고 했으나, 7월에도 연이 어 적발됐다”고 8월 10일 밝혔다.

교구장 자광 스님은 “불자들이 육군훈련소 대자불사에 심심일만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쫓겠다는 것은 큰 죄악이며 사기행위”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강원종교평화협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한마음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강원 지역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8월 7일 평창 월정사에서 강원종교평화협의회를 발족했다.

행사에서 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는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념 스님이, 공동대표는 천주교 춘천교구장 김윤희 주교와 기독교 강원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철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날 강원지역 종교지도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종교간 화합을 다짐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에 따른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추모법회추진위 김대중 前 대통령 추모법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불교계 10여 단체로 구성된 김대중前대통령추모법회추진위원회는 8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청와 스님은 법어에서 “故 김대중 대통령은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삶을 살다 제행무상의 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다”며 “죽음에 가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과 미래를 향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한 그의 삶과 정신을 본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의 삶을 그린 자작시를 낭독했다.

이상연 기자

의례환수위 일본 방문해 의례 반환 촉구

조선왕실의례환수위원회(공동대표 김경의, 이하 환수위)가 8월 4-5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만나 의례의 반환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조계종중앙신도회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의되는 조선왕실의례의 반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일본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환수위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조선왕실의례 반환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온 만큼 8월 중으로 의례가 돌아오지 못한다해도 ‘조선왕실의례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념만은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불멸(不滅)의 사자후
세계 불교사에 던져진 매머드급 허리케인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4월 초파일 10만 2천명 항공사진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 1회 절찬리 방영중!!
8월 16일 현지사 대전분원 큰스님 대법회 녹화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큰스님 저 16쇄 | 371면 | 25,000원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여 세계 불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화제의 대작!
육도윤회세계와 해탈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면서 진리의 생사관을 제시한 21세기 인류사상의 금저탑!
부처님께서는 어느 불교 경전 못지않게 평가하시는 위대한 시대적 성서!
발간 당시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 기록
빅테호 변호사(법학박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통한 큰스님의 사자후에 모든 의문점이 녹는 듯 사라졌다...”
주요서 중앙일보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는 예사롭지 않았다. 고백컨대 충격으로 다가왔다...가히 파천왕이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광명만덕 큰스님, 자재만현 큰스님 공저
36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희유한 실재와 사바세계에 현신하시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
불교사상 처음으로 인간 영혼체의 비밀을 밝혀서 영체윤회설을 최초로 선언하여 2000년 불교사의 무
아유훈어쟁에 종지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록한 미증유의 보석이다. 아울러 보살·붓다가 되는 청명
염불 수행법을 주장하여 ‘타력중심수행’이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와 도킹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를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법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일일담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 **법문집 I 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 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108 대참회문** 108배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회수행 지침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 행복으로 가는길**
쉽게 접하는 불법의 장.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

■ **붓다의 메시지 총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관음태고, 관음태고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삼대 속 관세음보살님에게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고법과 지장보살님에게서 주전하시는 천도계를 소개한 인류의 필독서.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펴려.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